

지역별 치과위생사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양승경[†] · 김은희
안동과학대학 치위생과

Demand and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s for Academic Credit Bank System According to Different Regions

Seung-Kyeong Yang[†] and Eun-Hee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ong Science College, Andong City, Gyeongbuk 760-709,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s in different regions about credit bank system and their needs for tha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12 dental hygienists in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in Seoul, Gyeonggi province, metropolitan cities, Gangweon province and Gyeongsang province.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in 200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1.5 program.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In regard to perception of the credit bank system, 68.3 percent of the dental hygienists were cognizant of that. The dental hygienists from most of the geographic areas were aware of it, but all the forty three dental hygienists from Gangweon province who accounted for 13.8 percent didn't know about that. As for media by which they acquired information on that, many of the dental hygienists learned about it from their acquaintances (46.2%), but that was not the case for the dental hygienists from Seoul and Gyeonggi province. 2. As for expectations for the credit bank system, those from Gyeongsang province had the greatest expectations for that in six out of nine items, which included academic or job performance improvement, acquisition of credits, degree or certificates and access to new technology. 3. Concerning educational spending on the credit bank system, 18.9 percent and 8.7 percent from Seoul/Gyeonggi province and Gangweon province spent less than 30 thousand won, and 19.9 percent from the metropolitan cities spent 30 thousand to less than 50 thousand won. 4. As for the importance of the categories of their major in the credit bank system, those from Gangweon province attached the most importance to oral health education (3.56 ± 1.259), and the dental hygienists from the metropolitan cities put the most stress on preventive treatment (3.64 ± 1.191).

Key words Academic credit bank system,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s, Different regions

서 론

치위생학은 1965년 연세대학교 의학수련원의 수습 기관으로 시작한 이래 1977년 2년 과정의 전문대학에 설치된 이후 1994년 3년제의 학제 개편과 2002년 4년제 학부의 신설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¹⁾.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은 2008년 6월 현재 60개 대학에 이르며 4년제는 9개교, 3년제는 51개교이다. 이는 전문대학의 비율이 85%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의 발

달, 직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구조상의 급속한 발달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점점 전문적인 역할이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직무내용도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²⁾. 그러므로 현행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능한 전문 인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전문적인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임상에서 근무하는 전문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계속교육과 관련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81.9%가 계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³⁾,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회의 보고서⁴⁾에는 치과위생사들의 계속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 보건계열 분야 전공자들의 자기 발전의지가 높아 계속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았으며⁵⁾, 치위생(학)과를 졸업한 학생의 70%는 자아실현과 지위향상을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

[†]Corresponding author
Tel: 010-9900-2809
Fax: 054-851-3677
E-mail: ysk2809@hanmail.net

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⁷⁾. 1998년 3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초기에 보건의료분야는 학점은행제로 평가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되었으나, 2006년 3월부터 보건의료분야도 학점 인정이 가능해져 학점은행제를 통한 계속교육과 학위취득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전국 치위생(학)과는 서울·경기 10개 대학, 광역시 15개 대학, 전라도 13개 대학, 경상도 충청도 각각 9개 대학, 강원도 3개 대학, 제주도 1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그 중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2006년 1학기 광주보건대학 외 4곳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8년 1월 현재 서울·경기 5개 대학, 광역시 7개 대학, 전라도 3개 대학, 경상도 1개 대학으로 총 16개 대학⁸⁾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계속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가 거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학점은행제의 운영에서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을 강조한 종합적인 지식체계의 교육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은 물론 계속교육기관의 지역적 안배를 통한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계속교육의 기회 제공과 지역사회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별 치과위생사의 인식이나 요구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학점은행제에 관한 기대와 요구를 지역별로 조사하였으며, 이는 치과위생사의 계속교육의 기회확대와 학점은행제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경기, 광역시, 강원도, 경상도에 위치한 치과 병의원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312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2. 연구방법

조사도구는 박⁹⁾, 김¹⁰⁾, 양¹¹⁾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설문지는 일반적 사항 6문항,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에 관한 사항 4문항, 학점은행에 관한 인지도 7문항, 학점은행제에 관한 기대도 9문항,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관한 요구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업만족에 관한 사항 4문항, 학점은행제 참여의사 1문항, 학점은행 기대도 9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처리하였다. 학점은행에 관련한 전공분야에 대한 요구는 순위가 높을수록 영역별 분야별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대상자를 무작위 선택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312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Win 11.5 program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지역별로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를 구하였다.

둘째, 지역별 학점은행제에 관한 인식, 학점은행제에 대한 요구는 교차분석을 통해 집단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지역별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 학점은행제에 관한 기대도, 전공영역에 관한 중요도는 One-way ANOVA를 통해 집단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연령은 25세 이하가 51.9%, 26~30세가 34.6%이었고,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이 88.5%로 대부분을 차지해 지역 모두에서 같은 결과였다. 근무지는 치과병원이 54.2%, 치과의원이 45.8%로 광역시와 경상도는 각각 29.5%, 21.5%로 치과병원이 많았으며, 서울·경기와 강원도는 각각 22.4%, 13.8%로 치과의원이 대부분이었다. 근무경력 은 지역 모두 2~3년이 3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년 이하가 24.7%이었다. 학과선택 동기는 지역 모두에서 취업전망이 밝아서가 56.7%, 부모·교사 또는 친구의 권유가 24.0%, 내신과 시험성적에 의해서가 9.6% 순이었다. 학위취득계획은 무관하다가 62.5%, 꼭 취득하겠다가 26.9%, 취득하고 싶지 않다가 10.6% 순으로 나타났다.

2. 지역별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값±표준편차는 3.34±0.641로, 지역별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3.55±0.501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에서 3.07±0.64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학적으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평생 동안 종사할 것 인가의 평균값±표준편차는 3.01±0.814로, 지역별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3.36±0.484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에서

Table 1.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Contents	cronbach's α
Job satisfaction	7.043
Expectations for academic credit bank system	8.654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for the subjects

Classifications	Divisions	Seoul	Metropolitan	Gangwon	Gyeongsang-	Total
		Gyeonggi	city	-do	do	
		N(%)	N(%)	N(%)	N(%)	N(%)
Age	Under 25 years old	41(13.1)	48(15.4)	20(6.4)	53(17.0)	162(51.9)
	26-30 years old	18(5.8)	40(12.8)	15(4.8)	35(11.2)	108(34.6)
	31-35 years old	21(6.7)	2(0.6)	8(2.6)	8(2.6)	39(12.5)
	36-40 years old	-	-	-	1(0.3)	1(0.3)
	Over 41 years old	-	2(0.6)	-	-	2(0.6)
	Total		80(25.6)	92(29.5)	43(13.8)	97(31.1)
Academic background	Junior college graduate	59(18.9)	82(26.3)	43(13.8)	92(29.5)	276(88.5)
	In the middle of a bachelor's degree	-	5(1.6)	-	2(0.6)	7(2.2)
	Bachelor's degree acquired	13(4.2)	5(1.6)	-	2(0.6)	20(6.4)
	In the middle of a master's degree	-	-	-	1(0.3)	1(0.3)
	More than acquisition of a master's degree	8(2.6)	-	-	-	8(2.6)
Total		80(25.6)	92(29.5)	43(13.8)	97(31.1)	312(100.0)
Working site	Dental hospital	10(3.2)	92(29.5)	-	67(21.5)	169(54.2)
	Dental clinic	70(22.4)	-	43(13.8)	30(9.6)	143(45.8)
	Total	80(25.6)	92(29.5)	43(13.8)	97(31.1)	312(100.0)
Working career	Under 1 year	17(5.4)	27(8.7)	8(2.6)	25(8.0)	77(24.7)
	2-3 years	26(8.3)	31(9.9)	12(3.8)	36(11.5)	105(33.7)
	4-5 years	8(2.6)	16(5.1)	11(3.5)	17(5.4)	52(16.7)
	6-7 years	8(2.6)	14(4.5)	4(1.3)	11(3.5)	37(11.9)
	Over 8 years	21(6.7)	4(1.3)	8(2.6)	8(2.6)	41(13.1)
	Total	80(25.6)	92(29.5)	43(13.8)	97(31.1)	312(100.0)
Motive for choosing a course of study	By the academic report and the exam result	8(2.6)	8(2.6)	4(1.3)	10(3.2)	30(9.6)
	Due to poor family circumstances	-	3(1.0)	4(1.3)	-	7(2.2)
	Because there is a course of study suitable for aptitude	8(2.6)	6(1.9)	-	7(2.2)	21(6.7)
	Owing to recommendation of parents, teacher or friend	26(8.3)	19(6.1)	11(3.5)	19(6.1)	75(24.0)
	Due to bright prospect for employment	38(12.2)	56(17.9)	24(7.7)	59(18.9)	177(56.7)
	Because of continuing to feel the necessity of education during employment	-	-	-	1(0.3)	1(0.3)
	Because of being a condition of marriage	-	-	-	1(0.3)	1(0.3)
	Total	80(25.6)	92(29.5)	43(13.8)	97(31.1)	312(100.0)
Plan for acquiring an academic degree	Dislike to acquire	8(2.6)	12(3.8)	4(1.3)	9(2.9)	33(10.6)
	Have no relation	62(19.9)	47(15.1)	35(11.2)	51(16.3)	195(62.5)
	Like to acquire surely	10(3.2)	33(10.6)	4(1.3)	37(11.8)	84(26.9)
	Total	80(25.6)	92(29.5)	43(13.8)	97(31.1)	312(100.0)

2.86±0.8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생동안 종사할 것인가는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 사회적 지위의 평균값±표준편차는 2.83± 0.720으로, 지역별로 강원도 지역에서 3.14±0.915로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 2.73±0.63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5$). 임금 수준의 평균값±표준편차는 2.49 ±0.717로, 지역별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2.73±0.636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에서 2.30±0.6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금 수준은 통계학적으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을 제

외한 나머지 직무만족은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며, 광역시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을 제외한 나머지 직무만족은 평균보다 약간 낮아 대조를 보였다(Table 3).

3. 지역별 치과위생사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 및 참여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은 68.3%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식을 하고 있으나, 강원도 지역은 조사대상자 43명(13.8%) 모두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한 정보매체로는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위 사람들에 의해 인식하는 비율(46.2%)이 높았으며, 서울·경기 지역은 인터넷 또는 PC통신이 9.9%로 상

Table 3.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different regions

Classifications	Region	N	Mean±SD	F
Satisfaction with job category	Seoul Gyeonggi	80	3.55±0.501	10.763***
	Metropolitan city	92	3.07±0.643	
	Gangwon-do	43	3.53±0.505	
	Gyeongsang-do	97	3.33±0.703	
	Total	312	3.34±0.641	
Satisfaction with lifelong occupation	Seoul Gyeonggi	80	3.36±0.484	7.136***
	Metropolitan city	92	2.86±0.884	
	Gangwon-do	43	2.88±1.005	
	Gyeongsang-do	97	2.93±0.794	
	Total	312	3.01±0.814	
Satisfaction with social position	Seoul Gyeonggi	80	2.73±0.636	3.510*
	Metropolitan city	92	2.77±0.681	
	Gangwon-do	43	3.14±0.915	
	Gyeongsang-do	97	2.85±0.697	
	Total	312	2.83±0.720	
Satisfaction with wage	Seoul Gyeonggi	80	2.73±0.636	5.736***
	Metropolitan city	92	2.30±0.642	
	Gangwon-do	43	2.60±0.760	
	Gyeongsang-do	97	2.43±0.776	
	Total	312	2.49±0.717	

*p < 0.05, ***p < 0.001

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참여의사는 서울·경기 지역은 ‘참여하지 않겠다’ 18.3%, ‘보통’ 7.4%,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없으며, 광역시는 ‘참여하겠다’ 13.8%, ‘보통’ 9.9%, ‘참여하지 않겠다’ 5.8% 순이었다. 또한 강원도 지역은 ‘보통’ 13.8%(43명)로 나타났으며, 경상도 지역은 ‘보통’ 12.5%, ‘참여하겠다’ 11.2%, ‘참여하지 않겠다’ 7.4% 순이었다. 광역시와 경상도 지역은 ‘참여하겠다’ 각각 13.8%, 11.2%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참여의사가 높았으며, 서울·경기 지역은 ‘참여하지 않겠다’ 18.3%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하겠다’는 서울·경기지역과 광역시는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로 각각 4.8%, 8.7%로 높게 나타났고, 경상도 지역은 학문적 발전의 기회 8.0%,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 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울·경기지역은 이수 후 사회적 인정도 문제 7.4%, 학습과목이나 교육프로그램 부족 5.8% 순이었으며, 광역시는 학습과목이나 교육프로그램 부족 4.2%, 교육활동에 참여할 시간 부족 3.5% 순이었으며, 강원도 지역은 교육활동에 참여할 시간 부족과 학점은행제에 대한 안내 및 정보 부족으로 각각 1.3%가 응답하였고, 경상도 지역은 교육활동에 참여할 시간 부족 4.8%, 학점은행제에 대한 안내 및 정보 부족 3.2% 순으로 나타났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문항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Table 4).

4. 지역별 치과위생사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대도

학업이나 업무능력 개선에 따른 개선치의 평균값±표준

편차는 3.41 ± 0.828 로, 지역별로 경상도 지역에서 3.58 ± 0.899 로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 3.20 ± 0.960 로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5$). 학점·학위 또는 자격증의 평균값±표준편차는 3.79 ± 0.729 로, 지역별로 경상도 지역에서 3.95 ± 0.808 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지역에서 3.53 ± 0.505 로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 여가선용의 평균값±표준편차는 2.79 ± 0.729 로, 지역별로 강원도 지역에서 3.19 ± 0.394 로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 2.56 ± 0.672 로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 구직활동(취업)의 평균값±표준편차는 3.38 ± 0.837 로, 지역별로 강원도 지역에서 3.74 ± 0.621 로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 3.16 ± 0.770 로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 사회변화에 적응의 평균값±표준편차는 3.33 ± 0.807 로, 지역별로 경상도 지역에서 3.47 ± 0.891 로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 3.08 ± 0.569 로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1$). 교양함양의 평균값±표준편차는 3.44 ± 0.869 로, 지역별로 경상도 지역에서 3.59 ± 0.760 로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 3.24 ± 1.139 로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5$). 사회활동에 참여의 평균값±표준편차는 3.42 ± 0.806 으로, 지역별로 경상도 지역에서 3.60 ± 0.786 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 3.15 ± 0.915 로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1$). 새로운 기술환경 접근의 평균값±표

Table 4. Recognition on academic credit bank system according to different regions

Classifications	Divisions	Seoul	Metropolitan	Gangwon	Gyeongsang-	Total	χ^2
		Gyeonggi	city	-do	do		
		N(%)	N(%)	N(%)	N(%)	N(%)	
Recognition	Yes	64(20.5)	77(24.7)	-	72(23.1)	213(68.3)	27.969***
	No	16(5.1)	15(4.8)	43(13.8)	25(8.0)	99(31.7)	
	Total	80(25.6)	92(29.5)	43(13.8)	97(31.1)	312(100.0)	
formation media recognized	Newspaper and advertisement leaflet	-	3(1.0)	-	8(2.6)	11(3.5)	109.293***
	Broadcasting media such as Tv and radio	8(2.6)	3(1.0)	-	-	11(3.5)	
	Telephone and visit to interview	-	3(1.0)	-	-	3(1.0)	
	Internet or PC communication	31(9.9)	1(0.3)	-	5(1.6)	37(11.9)	
	Surrounding people	25(8.0)	65(20.8)	-	54(17.3)	144(46.2)	
	Publicity of the corresponding insti- tution	-	2(0.6)	-	6(1.9)	8(2.6)	
	Total	80(25.6)	92(29.5)	43(13.8)	97(31.1)	312(100.0)	
	Total	80(25.6)	92(29.5)	43(13.8)	97(31.1)	312(100.0)	
Intention of participation	Not so	57(18.3)	18(5.8)	-	23(7.4)	98(31.4)	220.198***
	Moderate	23(7.4)	31(9.9)	43(13.8)	39(12.5)	136(43.6)	
	So	-	43(13.8)	-	35(11.2)	78(25.0)	
	Total	80(25.6)	92(29.5)	43(13.8)	97(31.1)	312(100.0)	
Willing to participate	Opportunity of acquiring a bache- lor's degree	15(4.8)	27(8.7)	4(1.3)	23(7.4)	69(22.1)	162.819***
	Opportunity of academic progress	-	17(5.4)	-	25(8.0)	42(13.5)	
	Easier than other route of acquiring a bachelor's degree	-	-	4(1.3)	1(0.3)	5(1.6)	
	Aiming to prepare for going on to graduate school	-	12(3.8)	-	5(1.6)	17(5.4)	
	Total	80(25.6)	92(29.5)	43(13.8)	97(31.1)	312(100.0)	
Unwilling to participate	Lack of time that will take part in education activity	8(2.6)	11(3.5)	4(1.3)	15(4.8)	38(12.2)	90.896***
	Economic burden	-	-	-	7(2.2)	7(2.2)	
	Lack of guidance and information on Academic Credit Bank System	16(5.1)	5(1.6)	4(1.3)	10(3.2)	35(11.2)	
	Lack of the learning subject or of the education program suitable for the person in question	18(5.8)	13(4.2)	-	1(0.3)	32(10.3)	
	Problem of social recognition after completion	23(7.4)	4(1.3)	-	5(1.6)	32(10.3)	
	Total	80(25.6)	92(29.5)	43(13.8)	97(31.1)	312(100.0)	

***p < 0.001

준편차는 3.61±0.879로, 지역별로 경상도 지역에서 3.82±0.817로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 3.34±1.158로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 인간관계 개선의 평균값±표준편차는 3.32±0.818로, 지역별로 광역시에서 3.58±0.633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 2.99±1.0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

경상도 지역은 학업이나 업무능력 개선, 학점·학위 또는 자격증, 새로운 기술환경 접근 등 기대도 9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가장 높았고, 강원도 지역은 여가선용과 구직활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경기 지역은 전체적으로 기대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Table 5).

5. 지역별 치과위생사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요구

교육비는 서울·경기 지역은 3만원 미만 18.9%, 광역시는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19.9%, 강원도 지역은 3만원 미만 8.7%, 경상도 지역은 3만원 미만과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각각 14.1%로 가장 많았다. 교육방법은 서울·경기 지역은 강의식이 13.5%이었고, 광역시 강원도 경상도는 강의+실습이 각각 18.6%, 11.5%,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영 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보면 서울·경기 지역과 경상도 지역은 사회적 인정 증대가 각각 11.9%, 12.5%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자의 요구 반영이 각각 11.2%, 8.7% 순이었다. 광역시는 학습자의 요구 반영 10.9%, 참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7.4% 순이었으며, 강원도 지역은 학습자의 요구 반영 6.4%, 교육프로그램 안

Table 5. Expectations for academic credit bank system according to different regions

Classifications	Region	N	Mean±SD	F
Scholastic achievement or ability of improving duty	Seoul Gyeonggi	80	3.20±0.960	3.206*
	Metropolitan city	92	3.43±0.716	
	Gangwon-do	43	3.35±0.482	
	Gyeongsang-do	97	3.58±0.899	
	Total	312	3.41±0.828	
Academic credit, academic degree, or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Seoul Gyeonggi	80	3.59±0.669	6.719***
	Metropolitan city	92	3.92±0.715	
	Gangwon-do	43	3.53±0.505	
	Gyeongsang-do	97	3.95±0.808	
	Total	312	3.79±0.729	
Good use of spare time	Seoul Gyeonggi	80	2.56±0.672	7.425***
	Metropolitan city	92	2.76±0.732	
	Gangwon-do	43	3.19±0.394	
	Gyeongsang-do	97	2.84±0.812	
	Total	312	2.79±0.729	
Job-hunting activity (employment)	Seoul Gyeonggi	80	3.16±0.770	5.495***
	Metropolitan city	92	3.30±0.848	
	Gangwon-do	43	3.74±0.621	
	Gyeongsang-do	97	3.48±0.903	
	Total	312	3.38±0.837	
Adaptation to a social change	Seoul Gyeonggi	80	3.08±0.569	5.094**
	Metropolitan city	92	3.46±0.818	
	Gangwon-do	43	3.19±0.852	
	Gyeongsang-do	97	3.47±0.891	
	Total	312	3.33±0.807	
Cultivation of culture	Seoul Gyeonggi	80	3.24±1.139	2.788*
	Metropolitan city	92	3.51±0.763	
	Gangwon-do	43	3.35±0.650	
	Gyeongsang-do	97	3.59±0.760	
	Total	312	3.44±0.869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Seoul Gyeonggi	80	3.15±0.915	2.994**
	Metropolitan city	92	3.45±0.790	
	Gangwon-do	43	3.44±0.502	
	Gyeongsang-do	97	3.60±0.786	
	Total	312	3.42±0.806	
Access to new technological environment	Seoul Gyeonggi	80	3.34±0.158	4.634***
	Metropolitan city	92	3.72±0.652	
	Gangwon-do	43	3.37±0.655	
	Gyeongsang-do	97	3.82±0.817	
	Total	312	3.61±0.879	
Improvement in human relations	Seoul Gyeonggi	80	2.99±1.000	7.534***
	Metropolitan city	92	3.58±0.633	
	Gangwon-do	43	3.00±0.756	
	Gyeongsang-do	97	3.51±0.694	
	Total	312	3.32±0.818	

*p < 0.05, **p < 0.01, ***p < 0.001

내 및 홍보와 사회적 인정 증대가 각각 2.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는 지역별 모두 근무시 활용 가능한 임상내용이 59.0%로 가장 많았고, 전공 관련 심화된 이론이 36.9%로 나타났다. 지역별 치과위생사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요구도에 있어 모든 항목에서 상호간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Table 6).

6. 지역별 치과위생사의 전공영역별 중요도

학점은행제 전공 영역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구강보건 교육영역의 평균값±표준편차는 3.17±1.210, 지역별로 강원도 지역에서 3.56±1.259로 가장 높았고, 경상도 지역에서 2.88±1.1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예방치치영역의 평균값±표준편차는 3.52±1.200, 지역별로 광역시에서 3.64±

Table 6. Requirements for academic credit bank system according to different regions

Classifications	Divisions	Seoul	Metropolitan	Gangwon	Gyeongsang-	Total	χ^2	
		Gyeonggi	city	-do	do	N(%)		
		N(%)	N(%)	N(%)	N(%)	N(%)		
Educational expenses	Under 30,000 won	59(18.9)	20(6.4)	27(8.7)	44(14.1)	150(48.1)	114.662***	
	30,000-50,000 won	21(6.7)	62(19.9)	16(5.1)	44(14.1)	143(45.8)		
	50,000-70,000 won	-	10(3.2)	-	8(2.6)	18(5.8)		
	70,000-100,000 won	-	-	-	1(0.3)	1(0.3)		
Total		80(25.6)	92(29.5)	43(13.8)	97(31.1)	312(100.0)		
Educational method	Lecture style	42(13.5)	13(4.2)	4(1.3)	13(4.2)	72(23.1)	57.546***	
	Practice	8(2.6)	7(2.2)	3(1.0)	11(3.5)	29(9.3)		
	Lecture+practice	17(5.4)	58(18.6)	36(11.5)	67(21.5)	178(57.1)		
	Discussion style	13(4.2)	14(4.5)	-	6(1.9)	33(10.6)		
	Total	80(25.6)	92(29.5)	43(13.8)	97(31.1)	312(100.0)		
Core operation matters	Reflection of a learner's request	35(11.2)	34(10.9)	20(6.4)	27(8.7)	116(37.2)	104.836***	
	Program guidance and publicity	8(2.6)	10(3.2)	8(2.6)	12(3.8)	38(12.2)		
	Substantial benefit	-	23(7.4)	4(1.3)	16(5.1)	43(13.8)		
	Increase in social recognition	37(11.9)	22(7.1)	8(2.6)	39(12.5)	106(34.0)		
	Support for educational cost	-	3(1.0)	3(1.0)	3(1.0)	9(2.9)		
	Total	80(25.6)	92(29.5)	43(13.8)	97(31.1)	312(100.0)		
Quality of education	Clinical contents available during working	51(16.3)	45(14.4)	31(9.9)	57(18.3)	184(59.0)	41.940***	
	Improved theory related to a major	29(9.3)	42(13.5)	12(3.8)	32(10.3)	115(36.9)		
	Supplementation of culture section	-	3(1.0)	-	6(1.9)	9(2.9)		
	Preparation of a research report and a thesis	-	2(0.6)	-	2(0.6)	4(1.3)		
	Total	80(25.6)	92(29.5)	43(13.8)	97(31.1)	312(100.0)		

***p < 0.001

Table 7. Importance by sphere according to different regions

Classifications	Region	N	Mean±SD	F
Sphere of oral health education	Seoul Gyeonggi	80	3.16±1.174	3.799*
	Metropolitan city	92	3.29±1.218	
	Gangwon-do	43	3.56±1.259	
	Gyeongsang-do	97	2.88±1.157	
	Total	312	3.17±1.210	
Sphere of preventive dental treatment	Seoul Gyeonggi	80	3.53±1.018	3.097*
	Metropolitan city	92	3.64±1.191	
	Gangwon-do	43	3.02±1.371	
	Gyeongsang-do	97	3.63±1.227	
	Total	312	3.52±1.200	
Sphere of community dental health	Seoul Gyeonggi	80	1.80±0.863	4.543**
	Metropolitan city	92	2.32±0.876	
	Gangwon-do	43	2.21±0.833	
	Gyeongsang-do	97	2.05±1.103	
	Total	312	2.09±0.960	
Sphere of dental management	Seoul Gyeonggi	80	3.40±1.666	4.238**
	Metropolitan city	92	3.28±1.679	
	Gangwon-do	43	2.51±1.579	
	Gyeongsang-do	97	3.53±1.458	
	Total	312	3.28±1.621	
Sphere of medical-treatment coordination	Seoul Gyeonggi	80	3.11±1.501	7.830***
	Metropolitan city	92	2.42±1.462	
	Gangwon-do	43	3.70±1.372	
	Gyeongsang-do	97	2.95±1.530	
	Total	312	2.94±1.530	

*p < 0.05, **p < 0.01, ***p < 0.001

1.191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지역에서 3.02 ± 1.371 로 가장 낮게 나타나 두변수간에 $p < 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공중구강보건영역의 평균값 \pm 표준편차는 2.09 ± 0.960 , 지역별로 광역시에서 2.32 ± 0.876 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 1.80 ± 0.863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치과경영영역의 평균값 \pm 표준편차는 3.28 ± 1.621 , 지역별로 경상도 지역에서 3.53 ± 1.458 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지역에서 2.51 ± 1.579 로 가장 낮게 나타나 두변수간에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료협조영역의 평균값 \pm 표준편차는 2.94 ± 1.530 , 지역별로 강원도 지역에서 3.70 ± 1.372 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에서 2.42 ± 1.462 로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 서울·경기, 광역시, 경상도 지역은 예방치치영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고, 강원도 지역은 지역별 평균 대비 진료협조영역의 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7).

고 찰

학점은행제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장 실무경험이 있는 이른바 성인 학습자들이다. 성인학습자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한다. 실용적 학습자로서의 성인학습자는 학습 그 자체가 흥미로워서 학습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직업적 성취, 당면한 문제해결, 새로운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 사회적 관계형성 등 실생활과 관련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학습에 참여 한다¹²⁾. 이러한 학습자들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일련의 의미를 찾아내고, 학습의 본질은 경험에서 창출해 내는 데 있기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학습경험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13,14)}. 이에 본 연구는 학점은행제에 대한 지역별 치과위생사들의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86.5%는 30세 미만이었으며, 학력으로는 88.5%가 전문대학 졸업이었고, 58.4%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치위생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로는 취업 때문이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위취득계획은 꼭 취득하겠다는 응답자가 26.9%, '무관 하다'라고 응답한 수가 62.5%로 나타나 학위취득에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나 추후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이 개선된다면 수요가 증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지역별 직무만족에서는 치과위생사라는 직업 만족은 평균 3.34이고, 임금 수준은 평균 2.49로 서울·경기와 강원도 지역은 평균 이상 이었고, 광역시와 경상도 지역은 평

균 이하로 나타났다. 평생 동안 종사할 것인가는 평균 3.01로 서울·경기 지역은 평균 이상 이었고, 광역시·강원도·경상도 지역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위는 평균 2.83으로 강원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만족은 3.34로, 김¹⁵⁾의 3.44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에 대한 전체 평균은 2.92로, 박 등¹⁶⁾의 3.04와 이 등¹⁷⁾의 2.83과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다. 또한 임금 수준이 본 연구결과에서는 2.49로, 박 등¹⁶⁾의 2.69, 이 등¹⁷⁾의 2.5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정 등¹⁸⁾은 보수요인이 직무만족정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른 직무만족 요인보다 적절한 보수 체계가 아직도 고려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별 학점은행제에 대해 68.3%가 인식하고 있었으며, 강원도를 제외한 서울경기, 광역시, 경상도 지역에서 비슷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대상자의 46.2%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것이 11.9%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점은행제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강원도에서의 인식이 매우 낮게 나타난 원인은 학점은행제를 통한 치위생학의 운영 대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전체의 25.0%로 학사취득과 학문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와 경상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참여의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31.4%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수 후 사회적 인정도 문제, 두 번째로 학습과목이나 교육프로그램의 부족을 들고 있으며, 광역시와 경상도는 첫째, 학습과목이나 프로그램의 부족, 둘째, 교육활동에 참여할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는 학습자인 치과위생사들의 근무환경과도 매우 밀접한 상관을 보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예측되며,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에 따른 학습동기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한다¹⁴⁾. 직업적 능력의 향상, 사회적 관계형성, 사회봉사의 참여, 일상생활의 탈출, 커뮤니케이션 기술향상, 진학준비, 경제적 요구 등 실생활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학습에 참여 한다¹²⁾. 따라서 성인들의 교육활동에 참여는 실생활에 필요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수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결과는 학점은행제의 기대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3.39로, 학점·학위 또는 자격증이 평균 3.79로 가장 높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접근이 3.61, 교양함양이 3.44, 사회활동 참여가 3.42, 학업이나 업무능력 개선이 3.41의 순으로 평균 이상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었다. 지역별 기대 순위를 살펴보면, 1 2 3 순

위인 학점·학위 또는 자격증,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접근, 교양함양에서 모두 경상도 지역이 각각 3.95, 3.82, 3.59로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와 강원도 지역은 평균 이하이었다. 사회활동에 참여와 학업이나 업무능력 개선은 경상도 지역이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이 가장 낮았으며, 구직활동(취업)은 강원도 지역이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변화에 적응은 경상도 지역이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이 가장 낮았으며, 인간관계 개선은 광역시가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이 가장 낮았다. 여가선용은 강원도 지역이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이 가장 낮았다. 서울·경기 지역은 기대도가 거의 대부분 평균보다 낮았고, 경상도 지역은 학점·학위 또는 자격증,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접근 등 6개 항목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 지역은 구직활동(취업)과 여가선용에서 평균 대비 높은 기대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학업이나 업무능력 개선에 대한 기대는 다른 기대 항목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점은행제의 본질적인 취지인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는 잘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의 운영방안에 대한 모색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Wlodkowski¹⁴⁾에 따르면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은 개인적 특성과 교육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지역별 학점은행제에 대한 학점 당 비용에 대한 요구는 응답자의 93.9%가 5만원 미만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교육방법으로는 57.1%가 강의+실습을 희망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은 강의식이 가장 높았고 광역시, 강원도, 경상도 지역은 강의+실습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으로는 전체의 59.0%가 근무 시 활용가능한 임상내용을 요구하였고, 36.9%는 전공 관련 심화된 이론을 요구하였다. 지역별로는 유사한 요구를 하고 있으나, 교양부문이나 연구보고서 및 논문작성과 같은 영역은 서울·경기와 강원도 지역에서는 전혀 요구가 없었으며, 광역시와 경상도 지역 또한 매우 미약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내용은 자신의 학습목적과 일치될 때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개인적 의미를 갖게 되며, 열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¹⁴⁾. 이를 미루어 볼 때 학습자가 요구하는 학습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교육내용에서 연구보고서 및 논문작성과 같은 영역은 실무와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되나, 앞에서 학점은행제 참여 이유에서 상당부분이 학사취득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학습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된다. 학점은행제 운영 시 전체적으로는 학습자의 요구반응과 사회적 인정 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경기와 경상도는 사회적 인정증대를, 광역시와 강원도는 학습자의 요구반응을 가장 높게 희망하고 있다.

전공 관련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에 대한 교육내용에서는 예방처치영역은 평균 3.52로 광역시가 3.64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지역이 3.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박⁹⁾의 예방처치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치과경영영역은 평균 3.28로 경상도 지역이 3.53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지역이 2.5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진료협조영역은 평균 2.94로 강원도 지역이 3.70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가 2.42로 가장 낮았다. 양¹¹⁾의 연구에서는 치과경영영역과 진료협조영역이 높게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강보건교육영역은 평균 3.17로 강원도 지역이 3.56으로 가장 높았고, 경상도 지역이 2.88로 가장 낮았다. 공중구강보건영역은 평균 2.09로 광역시에서 2.32로 가장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이 1.8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전공영역별 순위에서 공중구강보건영역이 가장 낮은 것은 조사대상자가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서울·경기, 광역시, 경상도 지역은 예방처치영역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 지역은 진료협조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치과경영영역과 진료협조영역은 통계학적으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p < 0.001$), 이는 지역에 따라 전공 관련 중요영역이 상당히 상이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학습자가 요구하는 학습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조사와 더불어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학점은행제의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교육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치과 병·의원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전체 치과위생사의 요구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적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 지역 및 다양한 근무지의 종사자로 대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점은행제 재학생을 대상으로 요구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치과위생사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지역별로 조사하기 위해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경기, 광역시,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 위치한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11.5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은 68.3%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식을 하고 있으나, 강원도 지역은 조사대상자 13.8%(43명) 모두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한 정보매체로는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위 사람들에 의해 인식하는 비율

(46.2%)이 높았다.

2.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대는 경상도 지역은 학업이나 업무능력 개선, 학점·학위 또는 자격증, 새로운 기술 환경 접근 등 기대도 9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 지역은 여가선용과 구직활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학점은행제에 대한 교육비는 서울·경기와 강원도 지역은 3만원 미만이 각각 18.9%, 8.7%, 광역시는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19.9%, 경상도 지역은 3만원 미만과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각각 14.1%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방법은 서울·경기 지역은 강의식이 13.5%이었고, 광역시·강원도·경상도 지역은 강의+실습이 각각 18.6%, 11.5%,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학점은행제 전공 영역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구강보건교육영역은 강원도 지역에서 3.56 ± 1.259 로 가장 높았고, 예방처치영역은 광역시에서 3.64 ± 1.191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1. Hwang MY: A quest for developing a model of the integrated curriculum. Thesis for a Doctor's Degree at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2.
2. Park TJ: A study on a plan for reinforcing function of the continuing education in junior colleg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01.
3. Lee JB: A Developmental plan for the major-deepened process in junior college. KCCE, 2001.
4. Korean Association Of Dental Hygiene Professors: An analysis of curriculum (3-year system) 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a report of presentation in the standard curricular development for new installing the major-deepened course, 2003.
5. Choe DM: A study on developing the acknowledgement of evaluation in the credit bank system for public health and medical field.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5.
6. Jeong JY, Choe JI: A study on consciousness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major education and occupational view. Journal KSSH(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13(1): 131-145, 2000.
7. Lee BU: A study on developmental direction in life-long education of junior college. Thesis for a Master's Degree at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2005.
8.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ttps://edubank.kedi.re.kr>
9. Park HS: A Study on a plan for operating the credit bank system for activating vocational education. Thesis for a Doctor's Degree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5.
10. Kim SY: A decision process on a plan for special admission in junior-college students. Thesis for a Doctor's Degree at Ewha Womans University, 1997.
11. Yang SK: A study on feasibility of practical affairs in the dental-hygiene curriculum. Thesis for a Master's Degree at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2004.
12. Boshier RW: Motivational orientation of adult education participants: A factor analytic exporation of Houle's typolpgy. Adult Education 21(2): 3-26, 1971.
13. Csikszentmihalyi M: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Collins, 1990.
14. Wlodkowski RJ: Enhancing adult motivation to learn: A comprehensive guide for teaching all adult(revise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9.
15. Kim YG: A study on job satisfaction and life qual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for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Education 3(2): 127-141, 2003.
16. Park HS: A Study on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in perception of dental hygienists. Thesis for a Master's Degree at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Chung-Ang University, 2003.
17. Lee HO, Im CH, Ju OJ, Kim YI, Lee HG: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ists of j region. Journal for KDHS 6(4): 285-293, 2006.
18. Jeong SH, Seo YG, Son EY, Choe YH, Song GB: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and related factors of dental auxiliaries. Journal for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29(3): 281-292, 2005.

(Received August 20, 2008; Accepted December 12, 2008)

